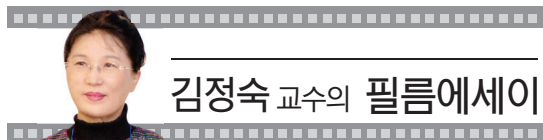


성서·에로틱·스릴러... 영화로 그려낸 오페라 '살로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아툼 에고이안 감독 '세븐 베일즈'

'세븐 베일즈'와 같은 예술 영화의 특성은, 개인적으로 좀 즐겁다. 베일에 싸인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고, 감독이 장치한 알레고리를 파악하려면 인 내심을 가지고 열중해야하는데, 여튼 즐겁다. 그래도 이야기가 사실이고 현실이라면 정신이 번쩍 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해 12월 3일 밤이다. 그 시간쯤 한국 사정을 모른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까 싶은 지인에게 '대통령이 미쳤나봐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짝맞은 글이 불굴의 의지로써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그를 일순간에 무너지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TV화면에 비친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45년 전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국회로 침입하여 무자비하게 국회의원들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끌어내던 무장 군인들 중 한 명이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은 군 제대 후에도 회한과 번민으로 이어져 있듯 무던히도 애썼고 간신히 잊은 채 살아왔다. 그런데 12·3 내란 뉴스 화면은 물어두었던 고통을 기억의 무



아툼 에고이안 감독 '세븐 베일즈'.

판씨네마(주) 제공

덤으로부터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하면서 귀국 후 자리 보전하게 만들었고 정신과 치료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몸을 역사적 범주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그치지 않는다. 일 개인이 평생 고통을 받는 트라우마를 만들어놓는 데 이르기까지 참혹하기 그지없다.

캐나다 영화 '세븐 베일즈' 역시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담고 있다. 제닌(배우 아만다 사이프리트)은 스승 찰스의 유언에 따라 스승의 대표작인 오페라 '살로메'의 감독을 맡게 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 (1905)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 (1893)가 원작이다. 오페라에 등장하는 '일곱 베일의 춤' (일곱 베일을 하나씩 벗어가며 추는 춤)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악명 높은 오페라로 알려져 있다. 성경 속 인물인 살로메는 유대의 왕 헤롯의 의

붓딸이다. 다시 말해, 헤롯은 이복형의 아내와 딸을 취한 인물. 이 결혼을 반대한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요한과의 키스를 거부당한 살로메는 헤롯 왕이 요구하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추는 대가로 요한의 목을 원한다. 키스를 위해.

이렇듯 성서적 주제와 에로틱함 그리고 스릴러의 요소가 결합된 이 작품을 두고 제닌은 스승의 방향대로 연출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스텝과 배우들이 감독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고통도 감내해야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끊임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이다. 작품에 몰입하면 할수록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계부에게서 받았던 상처, 스승과의 관계 등 억눌러두었던 과거의 자신과 살로메를 동일시하게 된다. 그녀가 트라우마를 무릅쓰며 연출

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을 제닉식 작품 해석으로 감내하는 동안 그녀 아닌 다른 여성에게도, 현재에도 상처를 주는 일, 즉 남성들의 폭행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닌이나 제닌의 엄마처럼 무력하게 물어두기보다는 공연기획자들의 물고 가지는 요구에도 소품 담당 클레아(배우 레베카리디어드)처럼 용기를 내보기를 감독은 암암리에 권유한다.

최근 토크 프로그램에서 1992년 발생했던 '계부살해사건'을 소재로 삼는 것을 보았다. 당시로서는 필자에게 큰 충격이어서 ○○○사건으로 이름까지 기억하는 사건이었다. 대학생 A양이 계부에게 10년 동안 성폭행당한 모습에 남자친구 B는 A와 함께 그녀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다. B는 여자친구 A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말했고, A는 감옥에 있는 7개월이 악마로부터 벗어나 가장 편안했던 밤이었노라 말했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시민단체의 구명운동과 함께 22인의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는 선고받은 3년과 5년의 징역도 특별사면과 감형조치를 받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성폭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던 계기도 되었다. 당시의 충격은 필자에게도 적지 않았다. 개인적 판단으로 '딸을 둔 엄마는 절대 재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자니 이혼도 안 해야겠다'를 결심했던 폭풍 같은 사건이었다. 영화 '세븐 베일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힘없는 약자들의 어쩔 수 없는 묻고 넘어가기, 용기를 낸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가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억압된 상흔 등...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오월, 우리를 지킨 영웅들



취재수첩

이정준

취재2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가정의 달' 5월은 녹음이 짙어지고 생명은 활기를 되찾는, 초여름의 문턱에 선 시기다.

부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고, 자녀들은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가슴

한편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그동안 날아주고 키워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처럼 5월은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달이다.

하지만, 광주의 5월에는 언제나 웃음 뒤에 슬픔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1980년, 각자의 위치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수많은 시민은 국가의 잔혹스러운 탄압으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됐다.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주던 시장 상인, 총칼을 들고 용감히 맞서던 소년들,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간 어린이 모두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다.

그날 쓰러진 오월의 영령들은 오랜 시간 외롭게 잠들어 있었다.

44년의 시간이 흘러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원된 계엄군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고, 시민들은 그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날 밤, 잔혹하고 두려웠던 광주의 5월이 다시 펼쳐지는 듯했다.

시민들은 공포심을 뒤로 한 채 국회로 뛰쳐 나와 무장한 군인들을 에워싸고, 대통령의 무모한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이 났다.

아침을 맞은 시민들은 "1980년의 광주가 현재를 구했다"며 입을 모았다. 그날의

항쟁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국회로 모인 5000여 명의 시민과 매주 주말 전국의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이 그 증거다. 오월의 영령들은 생사와 시대를 넘어선 연대로 오늘날의 우리를 지켜냈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그날, 5·18의 기억 덕분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5·18의 아픔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했고, 오월 영령의 정신이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5·18 제45주년을 맞아 취재하며 만난 유족과 시민들도 "지난 연말 다시 국가에 큰 비극이 닥칠 뻔 했다"고 입을 모았다.

혹자는 "이제 5·18은 그만 언급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미 끝난 일 아니냐"고 말하며 80년 오월을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계엄군의 총칼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은 평생이 지나도 마르지 않을 것이며, 오월의 영령들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닥치면, 언제든 부활할 것이다.

오월의 영령들은 우리를 지켜냈고, 5·18의 희생과 정신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나아갈 길을 비추는 거울이 됐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기기를 기원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